

## 전통조각보의 색채, 면구성을 응용한 패턴의 감성이미지 연구

최윤희 · 은영자  
계명대학교 의류학과

### A Study on the Sensitive Image of Pattern Applied Color & Formative Types of the Traditional Jokakbo

Yoon-Hye Choi and Young-Ja Eun

Dept. of Clothing & Textile, Keimyung University, Daegu, Korea

**Abstract** : This study is on the sensitive image of pattern expressed in the color & formative types of traditional Jokakbo(scrap of cloth). The object of this research is Korean traditional scraps of cloth in the latter period of Chosun Dynasty. This study is to be classified into 10 formative types like square type 1, square type 2, diagonal type, diamond type, many color striped type, concentric circle type, pinwheel type, vertical line type, cintamani pattern type, and free style type to apply the design of Jokakbo to Korean design. And color group is divided into vivid tone and pale tone. And it constitutes 17 patterns from the combination of these two types. As for the factors of constitution of scraps of cloth, it consists of factors like revelation, attraction, temperature sense, abstract, and rigidity. In the emotional image in the patterns, both vivid tone and pale tone showed dynamic and warm emotion together. Also, the factors of revelation and attraction were evaluated as opposite images, and it evaluated the plain and dim emotion as more attractive emotion. They preferred the pale tone to the vivid tone. They preferred the cintamani pattern in the vivid tone, and the diamond pattern in the pale tone most. From the research result above, this study made the abstract image of scraps of cloth standardized and prepared for a basis to execute it essentially. This research will be used as basic data to make traditional Korean image spotlighted in the world fashion markets as well as it will be helpful to the development of pattern design for the scraps of cloth essentially.

**Key words** : traditional jokakbo, sensitive image, pattern, color, korean image

## 1. 서 론

전통성을 활용한 한국적 디자인 개발은 국제화, 세계화, 정보화시대에 경쟁력 있는 디자인 차별화 수단이 될 수 있으며,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복식 디자인 분야에서 한국적 디자인을 위해 연구되어온 전통적 대상들은 다양하며 여러 각도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 중에서도 조선시대 여인들이 쓰다 남은 자투리라는 폐물의 미학인 조각보는 복식뿐만 아니라 생활용품에 이르기까지 현대적 적용을 통한 독창적이고 고유한 한국적 디자인의 소재로 주목받아 왔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조각보의 연구는 조각보의 이미지를 주관적, 관념적으로 파악하여 의상이나 장신구 또는 가구문양에 응용하는 실용적인 개념으로 통합하려는 연구가 많았다.

오늘날과 같은 “감성의 시대”에서 패션 산업은 상품 개발 경쟁이 더욱 치열한 분야로 상품 개발시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사항은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자의 기호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상품 개발에 신속히 적용하여 소비자의 감성에 정확하게 맞는 상품을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인간의 개성이나 감정 표현을 강조하는 의상 디자인 분야에 있어서는 의류 상품 개발을 위하여 소비자의 감성을 반영할 필요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정은영, 2001).

색과 선, 면의 상호 작용에 의한 복잡한 조형적 구성을 하고 있는 한국 전통조각보를 대상으로 한 감성이미지 연구는 디자인 활용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문제를 논리적,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후기 전통조각보를 연구 대상으로 한국적 디자인에 적용될 수 있는 조형원리를 면구성 형식과 색채로 나누어 분석하고 한국 전통조각보의 감성요인을 파악함으로써 객관적인 자료 구축과 새로운 디자인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토대로 현대 복식 디자인에 응용할 수 있는 디자인 방법을 제시할 것이다.

## 2. 이론적 배경

### 2.1. 조각보의 조형적 특성

한국 복식의 미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보면 금기숙(1988)은 한국 복식미를 자연미, 인격미, 벽사(辟邪)의 미, 전통의 미로 보았으며, 최세환·김민자(1993)는 한국 복식의 전통미를 순수미, 상징미, 비애미로 나누어 그 내용미로 보고 있다. 또한 김윤희(1997)는 한국 복식의 형태상의 특징을 통하여 한국 복식미를 자연성, 순수성, 해학성으로 요약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적 특색은 전통조각보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크게 자연미와 벽사미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자연미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고유섭은 한국적인 미를 무기교의 기교, 무계획의 계획(고유섭, 1963)이라고 요약할 만큼 작위적이지 않고 생활 본연의 양식화 작용을 통해 나오는 것이라 하였다. 일상생활 속에서 필수품의 하나로 널리 쓰여진 보자기도 전문적 예술작품이 아니라 여성들에 의해서 쓰다 남은 천들을 활용한 자연스럽게 생겨난 생활 지혜의 소산이며 여성들의 내면세계를 반영한 전통 생활용품이자 순수 추상 작품이다.

또한 우주의 근본원리가 되는 천, 지, 인 사상이 우리 민족의 조형의식에 작용되어 원형, 사각형, 삼각형의 기하학적인 형태로 나타났고 조각보의 면구성도 살펴보면 남은 천의 자투리를 잇기 위해 조각들을 배열하는 가운데서 원형, 사각형, 삼각형의 형태가 기하학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천, 지, 인의 삼재의 원리를 신봉하며 음양오행의 세계관을 믿는 우리 민족의 자연주의 사상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벽사미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먼저 색채가 가진 상징적인 의미는 자연환경과 주변의 현상에서 형성된 것이며 색채의 주술신앙으로 오래전부터 민속화 되어 실제 생활 전반에 걸쳐 지배해 왔고, 인간생활에 제약을 가져오는 음(陰)을 물리치기 위한 벽사의 색으로 사용되어 왔다. 벽사의 미란 주술성을 강조하여 실현하는 경우와 미리 길상의 축원으로 사악한 존재의 근절을 막거나 우주나 자연의 순리에 순응함으로써 사악한 능력의 개입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의지가 미적요소로 출현한 것을 의미한다(금기숙, 1988).

색채를 통한 벽사의 표현은 대조적인 원색사용에서 볼 수 있는데 조각보에서 길상적의미로 사용된 양(陽)의 색은 단지, 적·청·황의 3색만이 아니라 범위를 넓혀 홍·주홍·주색 등은 적색, 남·벽·초록·옥색 등은 청색과 유사색으로 여겨 상징하는 의미와 기능을 동일시하였다.

백색도 무당들의 무복에서는 주술적인 성격이 강하게 과시되었고, 신생아들이 백일 전 까지 입었던 백색저고리도 액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하려 한 주술적인 의지가 함축되어 있다. 색채가 갖는 주술적인 능력은 백색과 같이 원초적인 순수함을 활용하기도 하며, 원색의 조화를 보이는 음양오행설(陰陽五行說)의 색채개념에 근거하기도 한다(금기숙, 1994).

이러한 조각보의 예술성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강한 주술

성을 특징으로 하는 벽사의 미를 바탕으로 크기, 형태, 색상이 다른 각각의 천으로 이어지는 형태가 비규칙적이면서도 전체가 하나가 되는 조화의 미를 보이고 있으며 사각형, 삼각형, 원형의 기본적인 조형요소를 색채와 적절히 구성함으로써 서구적이고 현대적 감각을 지닌 차원 높은 예술작품을 창출해 냈다.

### 2.2. 감성과 복식디자인

패션산업은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개성추구, 자아실현 욕구 및 정체감을 충족시키려는 경향으로 전환되었고, 소비자의 필요 욕구와 내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감성적 제품 개발이 요구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패션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감성은 제품의 형태, 소재, 색채, 무늬 등에 대한 감각적 감성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박수진 등(1997)은 직물디자인의 감성 이미지 스케일 연구에서 직물 디자인의 시각적 요소와 관련된 감성을 평범하다 - 독특하다, 화려하다 - 단순하다, 귀엽다 - 중후하다 등으로 3차원의 감성 모형으로 나누어 직물의 시각적 디자인 요소가 색채뿐만 아니라 패턴, 소재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복잡한 상황임을 밝혔다. 조현승·이주현(2000)은 소비자의 감성을 기반으로 한 꽃무늬 스카프의 디자인 연구에서 소비자의 감성을 호오·심미감, 온화감, 악센트감, 리듬감의 감성차원으로 나누고 패턴 디자인의 최소단위와 반복단위를 개념화하여 모티프의 크기와 반복의 레이아웃 기법에 따라 감성차이가 있음을 밝혀 패턴 디자인 요소의 레이아웃 기법을 제안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색채와 직물의 감성 척도 또는 섬유소재연구 등의 한정된 영역에서 감성공학이 응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의류학에서도 이러한 기술적 접근을 요구하는 감성공학적 측면의 연구가 많이 행해지기 시작하여 김윤경·이경희(2000)는 의복무늬에 대한 시각적 감성차원을 조화성, 경연성, 주목성, 율동성 요인으로 나누고 부분적인 배치의 구상무늬는 여성적인 부드러운 감성을, 전면적인 배치의 비구상 무늬는 발랄하고 동적인 감성을 표현한다고 하였다.

이경희(2001)는 패션디자인 요소를 형태, 색채, 무늬, 재질감으로 나누어 각 디자인요소에 따른 패션감성을 분석한 결과 심미성, 성숙성, 개성, 여성·남성성의 요인으로 구성됨을 밝혔고 은소영 등(2002)은 의복배색에 따른 시각적 감성 차이를 알아 보기 위하여 감성의 구성요인을 매력성, 귀여움, 대담성, 부드러움으로 나누고, 의복배색을 대조, 조화, 악센트 등의 배색연출방법과 유채색/유채색, 유채색/무채색, 무채색/무채색 등의 배색방법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모든 요인에서 배색연출 및 방법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특히 조화배색이 대조배색과 악센트배색보다 매력적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처럼 의복조형으로 표현되는 심미성과 다양한 감성들이 형태, 색채, 재질, 무늬 등과 구조적으로 함께 통합되어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감성이 반영된 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심리적 차원의 감성과 물리적 차원의 디자인 요소와의 결합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한국의 전통이미지와 전통디자인 요소를 활용한 한국적 디자인에 관한 감성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어 장수경(1999)은 한국전통문양의 종류, 표현유형, 구성형식, 적용대상에 따른 감성이미지를 단순성, 고급성, 흥미성, 현대성 등으로 구성하여 추상적인 한국적 이미지를 정량화하였고 한국전통문양을 이용한 디자인 제안과 한국적 디자인에 대한 정확한 이해 및 정당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양현주·권영숙(2001)은 한국 전통 혼례복에 나타난 미적 감성을 한국과 일본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매력성, 정숙성, 활동성요인이 감성의미구조의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고 한국 전통 혼례복의 미적감성은 ‘아름다운, 장식적인, 정숙한, 품위 있는’ 등으로 나타나 외형미와 내적 미적특성이 조화된 의복임을 밝혔다.

이와 같이 한국적 디자인과 소비자들의 감성평가를 객관화하기 위한 연구가 1990년 후반부터 진행되어 왔지만 그 연구 대상은 다양하지 못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전통조각보를 대상으로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하는 조형요소인 면구성형식과 색채를 통한 개개인의 감성의 데이터 베이스화와 지표화의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 3. 연구방법 및 절차

#### 3.1. 조각보 수집

조각보의 수집은 전통 조각보 자료집과 박물관 소장품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2003년 1월 20일~26일에 걸쳐 옛 보자기, 이조왕조시대의 자수와 포, 조선시대의 한국의상과 보자기 등의 자료집과 사전자수박물관, 초전섬유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에 소장되어있는 조각보 183점을 전통유물 보존상 사진으로 수집하여 Photo shop 작업으로 배경색을 동일하게 하고 장식적인 요소는 제외한 조각보만을 4"×6"로 제작하였다. 의류학 전공 박사과정 대학원생 4명에 의한 분류작업을 통해 자수가 가미되거나 패턴으로서 부적합한 조각보, 구성형식을 벗어난 조각보를 제외한 139점이 선정되었고, 다시 다양한 구성형식과 색상을 보이는 견직물에 비해 대부분 한 가지 구성형식과 단색으로 구성된 모시조각보 49점을 소재의 동일성을 주기 위하여 제외하고 총 90점의 조각보가 실험에 사용되었다.

#### 3.2. 조각보의 조형적 분석

**면구성형식 분석** : 전통 조각보 90점을 대상으로 의류학 전공 박사과정 대학원생 4명이 구성형식별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선행연구의 분류 내용과 약간의 차이가 있었으며 수정 보완을 거쳐 Table 1과 같이 분류하였다.

조각보의 구성형식은 10가지로 나눌 수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정방형은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어 정방형1, 2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Fig. 1의 구성형식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자유형(22%), 정방형1(16%), 동심원형(13%), 바람개비형(11%), 색동형과 여의주형(8%), 다이아몬드형(7%), 사선형과 수직형(6%)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유형은 생활 곳곳에서 쓰다 남은

Table 1. 조각보의 구성형식

번호	구성형식	패턴	특징
1	정방형1		같은 크기의 정사각형이 모여서 이루어진 형태
2	정방형2		크고 작은 정사각형이 모여서 이루어진 형태
3	사선형		이등변 삼각형이 정연하게 모여서 사선을 이루며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형태
4	다이아몬드형		이등변 삼각형이 2개 혹은 4개가 모여 마름모형을 이루고 있는 형태
5	색동형		중앙에 있는 네모꼴을 중심으로 동심원이 퍼져나가듯 가느다란 색동띠를 두른 듯이 꾸며진 조각보
6	동심원형		중심점이 가운데 위치하고 이를 중심으로 작은 방형이 같은 폭으로 퍼지는 형태
7	바람개비형		중심점이 가운데 위치하고 이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바람개비의 날개와 같은 방향으로 조각천들이 배열된 형태
8	수직형		수직선을 이용한 형식으로 수직으로 내려온 선을 위주로 간격을 크고 작게 나누어진 방향을 반복시키고 있다.
9	여의주형		일정한 크기의 원들이 똑같은 크기의 겹친 부분을 네 군데 만들도록 서로 겹쳐져 있는 형태
10	자유형		패턴을 형성하지 않고 크고 작은 수십 개의 방형으로만 자유롭게 결합된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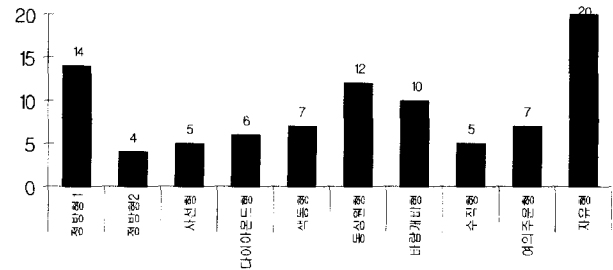


Fig. 1. 조각보의 구성형식 분포.

천 조각들을 규칙성을 배제한 채 무작위로 제작하였기 때문에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형식중의 하나이며 여의주형은 전체 8%로 유일하게 원형의 곡선으로 이루어진 형이다. 이는 한복의 마름질이 서양의 재단법과는 달리 사선과 직선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자투리로 만드는 조각보 역시 면적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직선을 많이 이용하였기 때문에 곡선을 이용한 여의주형의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색채분석 :** 복식 유물은 시간에 따른 직물의 탈색이나 염료의 특성 또는 재질과 관련된 색채의 특성에서 오는 오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측색 오차를 피하기 위하여 색채 분석 자료를 단색보다는 색상군이나 색조의 영역으로 제시하였다. 효율적인 색채 분류를 위하여 측색기를 사용하여 먼셀의 HV/C 값으로 측정 한 후, 먼셀의 색체계에 따라 빨강(R), 주황(YR), 노랑(Y), 연두(GY), 녹색(G), 청록(BG), 파랑(B), 남색(PB), 보라(P), 자주(RP)의 10색상군으로 나누었고 이를 더 세분화하여 각 10색상을 2등분한 5R, 10R의 20색상군으로 색영역을 구분하여 조각보에 사용된 색상의 특성을 보다 상세히 분석하였다. 또한 0에서 10까지 11단계의 명도, 16단계의 채도로 분류하여 전통색채를 현대의 미적 감성에 맞는 색채 자료로 분류시키기 위하여 색조분석을 실시하였다.

조각보에 사용된 색상을 분석한 결과는 Fig. 2와 같다. 총 색상 수는 734색이었으며 전체적으로 빨강이 2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주황(20%), 노랑(18%), 연두(13%), 자주(8%), 남색(7%)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빨강, 주황, 노랑계열까지의 영역이 전체의 60%를 차지하여 모든 조각보에서 난색계의 색상이 많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청색계열의 색상이 다소 낮게 나타나 적색계열의 색상과 함께 조각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는 선행연구와는 차이가 있었다. 이는 한국인의 색채의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푸른 산, 푸른 하늘과 같이 청색과 녹색에 대한 시각적인 차이에 대한 조각보와는 모두 상징적인 푸르림의 의미로 더 의식화했기 때문에(정시화, 1983) 남색뿐 아니라 초록색, 옥색 등 녹색계열의 색상도 청색과 동일 계열로 취급하여 그 상징기능을 동일시하였다.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녹색과 청색계열 색상의 비율은 28%를 차지하고 있어 오방색 중에서도 적색계열의 색상과 함께 벽사의 색으로 많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음양오행색의 범주에서 볼 때 적, 청, 홍의 오정색을 주로 사용하고, 여기에 홍, 벽, 유향, 녹, 자의 오간색을 첨가함으로써 조각보의 색채가 오방색을 중심으로 여러 색이 확산되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각보에 사용된 색채의 색조분포를 살펴본 결과는 Fig. 3과 같다. ltg 30%, p 19%, s 14%, g 12%, d·sf 9%의 순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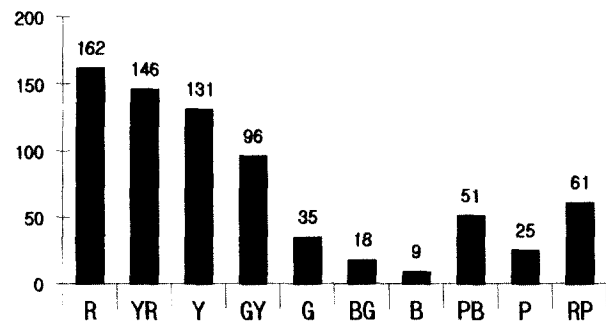


Fig. 2. 조각보의 색상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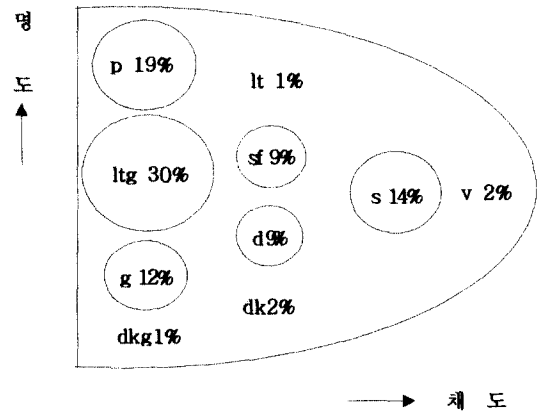


Fig. 3. 조각보의 색조분포.

나타나 중명도, 고명도 중심의 비교적 고른 채도 분포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밝은 백색을 중심으로 한 ltg, p와 원색을 중심으로 한 s, 중간색의 d, sf 사용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색상별로 색조를 분석한 결과는 Fig. 4와 같다. 빨강과 자주 계열의 색상은 s, v가 각각 53%, 40%를 차지하고 있어 중명도, 고채도의 선명하고 산뜻한 색이 많이 사용되었으며, 노랑계열의 색상은 p, ltg의 분포가 집중적으로 되어 있어 고명도의 밝은색 사용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주황과 연두계열의 색상은 ltg, p, sf의 순으로 색조가 온화하면서 부드러운 색의 사용이 많았으며, 녹색과 청록계열의 색상은 ltg, g를 중심으로 수수하면서 차분한 이미지의 색조가, 남색계열의 색상은 d, dk의 순으로 중간정도의 명도를 가진 부드러운 이미지와 다른 색상계열에 비해 어두운 색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결과에서 전통 조각보에 사용된 색조는 노랑, 주황, 연두, 녹색, 청록 등의 밝은 light gray, pale군과 빨강, 보라 등의 선명하고 산뜻한 strong, vivid군, 주황, 연두, 남색 등의 부드러운 dull, soft군의 사용이 많았다. 조각보에 사용된 배색의 원리는 제작자의 미적 감각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 일정한 규칙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원색으로 이루어진 화려한 배색과 엷은 파스텔조의 침착하고 차분한 색채조화가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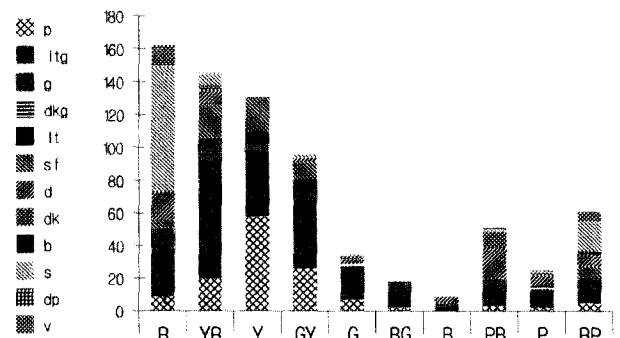


Fig. 4. 색상별 색조분포.

종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색으로 이루어진 화려한 배색을 vivid tone, 옅은 파스텔조의 침착하고 차분한 배색을 pale tone으로 분류하였다.

### 3.3. 조각보 선정 및 패턴 제작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분류에 따라 2003년 3월 5일~7일 사이에 의류학 전공자 3학년 20명을 대상으로 10가지 구성형식별로 그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는 조각보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평가를 통하여 선택된 조각보중 가장 빈도수가 높은 조각보 61점이 선정되었다. 구성형식에서 선택된 61점의 색채의 분석에 따라 원색배색을 중심으로 한 vivid tone과 옅은 파스텔조의 배색을 중심으로 한 pale tone으로 분류하였다. 전통 조각보는 유물인 관계로 모든 구성형식에서 원하는 배색이 나오기란 어렵다. 여의주형과 동심원형, 수직형에서 간색을 중심으로 한 pale tone을 찾을 수가 없어서 10가지 조각보의 구성형식에 대해 2가지 색채 배색을 각각 선정한 17가지의 조각보가 결정되었으며, 17가지 조각보는 조각보의 기본 단위만을 표현한 단독 패턴으로 제작되었고 시각적 효과를 고르게 하기 위하여 repeat 전개 방식을 수정하였다.

선택된 조각보는 Photo shop과 CAD로 제작되었으며 resolution 350 DPI환경에서 NedGraphics社의 softwear인 Fashion Studio의 Color Separation & Cleaning을 사용하였다. 최종적으로 조각보의 조형적인 분석을 통해 Fig. 5와 같이 정방향1, 정방향2, 사선형, 다이아몬드형, 색동형, 동심원형, 바람개비형, 수직형, 여의주형, 자유형 등 10가지 구성형식과 각각의 vivid tone과 pale tone으로 분류하여 17가지의 패턴디자인을 제작하였다.

### 3.4. 감성어휘 선정

조각보에 대한 감성어휘를 수집하기 위하여 2003년 5월 26일~5월 27일에 걸쳐 의류학 전공자 70명을 대상으로 자유 언어 연상법을 실시하여 패턴에 대한 느낌을 형용사로 자유롭게 기재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빈도수가 높게 나타난 형용사 31개를 수집하였고 선행연구와 국어사전, 반의어 사전 등을 통해 반대 형용사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형용사는 왼쪽 극단의 형용사는 1점을 오른쪽 극단의 형용사는 7점을 부여한 7점 의미미분척도로 구성하였다.

감성어휘에 대한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2003년 6월 2일~6월 4일에 걸쳐 의류학 전공자 61명을 대상으로 예비실험을 실시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될 17가지의 패턴 중 8가지를 예비실험에 사용하였으며 무순으로 제시되도록 하였다. 주성분 분석에 의한 varimax 직교회전을 이용하여 요인을 추출한 결과 7개의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전체 변량의 62.7%를 설명하였다. 31개의 형용사 중 요인부하량이 0.5이하인 5개의 형용사쌍을 제외한 26개의 형용사쌍과 선호도 측정 문항인 '좋아하는-싫어하는' 형용사쌍을 포함시켜 27개의 형용사쌍이 SD(Semantic Differential)척도로 구성되었다.

### 3.5. 자료 분석

조각보를 응용한 패턴의 감성이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2003년 6월 16일~7월 12일 사이에 계명대학교 남녀 대학생 695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것을 제외한 655부가 최종 자료 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WIN 10.0을 사용하여 통계처리 하였으며 연구 목적별 사용된 통계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조각보의 이미지 차원을 밝히기 위해 주성분 분석방법에 의한 varimax 회전을 이용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2. 조각보의 면구성에 따른 패턴의 이미지를 분석하기 위해 분산분석과 Duncan검정을 실시하였다.
3. 조각보의 선호도를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과 Duncan검정을 실시하였다.

## 4. 결과 및 고찰

### 4.1. 조각보의 감성이미지 구성요인

조각보의 감성이미지를 평가하는데 적합한 SD척도를 구성하기 위해 26개 형용사 쌍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안정성이 부족한 3개의 형용사 쌍을 제외한 23개의 형용사쌍이 분석에 사용되었으며 Table 2와 같이 주성분 분석과 varimax회전법으로 요인분석을 한 결과 고유값 1.0이상인 요인이 6개 도출되었다.

Table 2. 조각보의 감성이미지 구성요인

요인명과 형용사쌍	요인부하량
<b>요인 1 : 현시성 요인</b>	
강렬한 - 은은한	0.855
원색적인 - 원색적이지 않은	0.807
화려한 - 수수한	0.805
활동적 - 비활동적	0.754
눈에 띄는 - 눈에 띄지 않는	0.751
차분한 - 들뜬	-0.677
대비되는 - 대비되지 않는	0.578
부드러운 - 딱딱한	-0.530
고유값 : 5.724 전체변량(%) : 24.88 공통변량(%) : 39.93	
<b>요인 2 : 매력성 요인</b>	
깨끗한 - 지지분한	0.787
세련된 - 촌스러운	0.786
정돈된 - 어지러운	0.740
단순한 - 복잡한	0.620
예쁜 - 보기 싫은	0.599
고유값 : 3.617 전체변량(%) : 15.72 공통변량(%) : 25.23	
<b>요인 3 : 율동성 요인</b>	
규칙적인 - 불규칙적인	0.776
반복적인 - 반복적이지 않은	0.736
집중된 - 분산된	0.570
고유값 : 1.637 전체변량(%) : 7.11 공통변량(%) : 11.41	
<b>요인 4 : 온도감 요인</b>	
따뜻한 - 차가운	0.720
밝은 - 어두운	0.708
화사한 - 칙칙한	0.560
고유값 : 1.247 전체변량(%) : 5.42 공통변량(%) : 8.69	
<b>요인 5 : 추상성 요인</b>	
입체적인 - 평면적인	0.741
기하학적인 - 기하학적이지 않은	0.640
고유값 : 1.126 전체변량(%) : 4.89 공통변량(%) : 7.84	
<b>요인 6 : 경직성 요인</b>	
직선적인 - 곡선적인	0.813
도시적인 - 전원적인	0.577
고유값 : 1.001 전체변량(%) : 4.35 공통변량(%) : 6.98	
총전체변량 : 62.37%	

요인 1은 강렬한-은은한, 원색적인-원색적이지 않은, 화려한-수수한, 활동적-비활동적, 눈에 띄는-눈에 띄지 않는, 차분한-들뜬, 대비되는-대비되지 않는, 부드러운-딱딱한 등의 8개의 형용사로 구성되어 현시성 요인이라 명명하였다. 요인 2는 깨끗한-지지분한, 세련된-촌스러운, 정돈된-어지러운, 단순한-복잡한, 예쁜-보기 싫은 등의 5개의 형용사로 구성되어 매력성 요인이라 명명하였다. 요인 3은 규칙적인-불규칙적인, 반복적인-반복적이지 않은, 집중된-분산된 등 3개의 형용사로 구성되어 율동성 요인이라 명명하였다. 요인 4는 따뜻한-차가운, 밝은-어두운, 화사한-칙칙한 등 3개의 형용사로 구성되어 온도감 요인이라 명명

하였다. 요인 5는 입체적인-평면적인, 기하학적인-기하학적이지 않은 등 2개의 형용사로 구성되어 추상성 요인이라 명명하였다. 요인 6은 직선적인-곡선적인, 도시적인-전원적인 등 2개의 형용사로 구성되어 경직성 요인이라 명명하였다. 조각보의 감성이미지에 대한 6개의 요인이 전체변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2.3%이며 이 중에서 현시성 요인과 매력성 요인이 공통변량의 65.1%를 차지하여 조각보의 감성이미지의 의미공간내에서 중요한 차원으로 나타났다.

요인 1의 현시성 요인에 포함된 감성어휘는, 허영화(1985)의 ‘눈에 띈다-안 띈다’, ‘화려하다-수수하다’ 등의 활동성인자, 김희정(1999)의 ‘강렬한-무난한’, ‘화려한-수수한’, ‘들뜬-차분한’ 등의 현시성 요인, 이혜숙(1997)의 ‘강렬한-무난한’, ‘화려한-수수한’ 등의 평가성 차원, 이경희(2001)의 ‘화려한-수수한’, ‘강렬한-은은한’ 등의 개성요인으로 나타났다. 요인 2의 매력성 요인에 포함된 감성어휘는 박금옥(1996)의 ‘예쁘다, 세련되다, 촌스럽다’ 등의 품위성 요인, 장수경(1997)의 ‘깨끗한-지지분한’, ‘세련된-촌스러운’ 등의 매력성 요인, 김희정(1999)의 ‘세련된-촌스러운’, ‘산만한-정돈된’ 등의 매력성 요인, 이경희(2001)의 ‘세련된-촌스러운’, ‘깨끗한-지지분한’ 등의 심미성요인, 은소영 등(2002)의 ‘세련된-촌스러운’, ‘깨끗한-지지분한’ 등의 매력성 요인으로 나타났다. 요인 4의 온도감 요인에 포함된 감성어휘는 加藤·倡山(1982), 加藤(1984), 吉岡(1985)의 따뜻한 인자, 양현주, 권영숙(2001)의 ‘밝은-어두운’, ‘따뜻한-차가운’, ‘화사한-칙칙한’ 등의 현시성 요인, 장수경(1997)의 ‘따뜻한-차가운’ 등의 온유성 요인, 김희정(1999)의 ‘따뜻한-차가운’의 온도감 요인으로 나타났다. 요인 6의 경직성 요인에 포함된 감성어휘는 양현주·권영숙(2001)의 ‘직선적인-곡선적인’의 유연성 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선행연구와 비교 분석해 보면 각 구성요인마다 구성개념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만 요인 1의 현시성 요인과 요인 2의 매력성 요인은 인자구성이나 설명력에서 대부분의 선행연구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요인 3의 율동성 요인과 요인 5의 추상성 요인은 선행연구와 유사한 점이 극히 드물어 전통조각보가 지닌 조형적 요소에 따른 독특한 감성요인으로 볼 수 있다.

#### 4.2. 조각보의 조형성에 따른 패턴의 감성이미지

**vivid tone일 때의 패턴의 감성이미지** : vivid tone일 때 10 가지 패턴의 감성이미지를 평가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모든 요인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으며 전체적으로 vivid tone 일 때의 패턴의 감성이미지는 현시성, 율동성, 온도감, 추상성, 경직성 요인에서는 높게 나타났고 매력성 요인에서는 낮게 나타났다.

현시성 요인에서는 여의주형을 제외한 모든 패턴에서 현시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 사선형을 가장 강렬하고 화려한 감성으로, 여의주형을 가장 은은하고 수수한 감성으로 평가하였다. 이는 사선형이 정방형배열인 대부분의 면구성에 반

Table 3. vivid tone 일 때의 패턴의 감성이미지

번호	면구성	요인					
		현시성	매력성	울동성	온도감	추상성	경직성
1	정방형1	5.30c	3.42d	3.86d	5.38a	4.22f	5.07bc
2	정방형2	5.24cd	3.66c	5.01b	4.71b	4.61d	4.88d
3	사선형	5.74a	3.01e	5.00b	4.67bc	4.68bc	5.25b
4	다이아몬드형	5.60b	3.48d	4.38c	4.75b	4.54cd	4.94cd
5	색동형	5.16d	4.15b	5.58a	4.65bc	5.11a	5.08bc
6	동심원형	5.53b	4.30b	5.09b	4.77b	4.45de	5.06bc
7	바람개비형	5.32c	3.58cd	5.20b	4.59bc	5.21a	5.19b
8	수직형	5.36c	3.19e	4.00d	4.50c	4.33ef	5.52a
9	여의주형	4.65e	4.48a	4.40c	5.27a	3.93g	3.33e
10	자유형	5.32c	3.03e	3.80d	4.69b	4.85b	5.08bc
F-value		41.48***	69.86***	82.88***	25.18***	32.78***	91.19***

\*\*\*p<.001 a,b,c : Duncan test결과로 .05수준에 유의함을 나타냄

해 사선배열을 가지고 있어 동적인 이미지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여의주형은 유일하게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오방색의 강렬한 이미지 보다는 꽃무늬형태의 부드러운 이미지가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매력성 요인에서는 색동형, 동심원형을 제외한 모든 패턴에서 매력성이 낮게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 여의주형을 가장 세련되고 깨끗한 감성으로, 사선형을 가장 촌스러운 감성으로 평가하였다. 이는 여의주형이 꽃무늬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색채와 무늬에 따른 직물의 시각적 평가에서 꽃무늬가 예쁘고 우아하며 품위있는 이미지로 지각한다는 박금옥(1996)의 연구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특히 사선형 패턴과 여의주형 패턴은 현시성 요인과 매력성 요인에서 각각 상반된 이미지로 평가되고 있다. 현시성 요인에서는 사선형이 가장 높게, 여의주형이 가장 낮게 나타난 반면에 매력성 요인에서는 여의주형이 가장 높게, 사선형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즉 은은하고 수수한 감성을 더 매력적인 감성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울동성 요인에서는 정방형1, 자유형을 제외한 모든 패턴에서 울동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 색동형을 가장 규칙적이고 집중된 감성으로, 자유형을 가장 불규칙적이고 분산된 감성으로 평가하였다. 이는 색동형이 색동띠를 두른 것처럼 오방색이 규칙적인 모양의 반복으로 퍼져있기 때문이며, 자유형은 일정한 패턴을 형성하지 않고 크고 작은 수십개의 방형이 자유롭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온도감 요인에서는 모든 패턴에서 온도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 정방형1을 가장 따뜻하고 화사한 감성으로, 수직형을 가장 차갑고 칙칙한 감성으로 평가하였다. 이는 정방형1이 같은 크기의 작은 정사각형들이 밀집되어 있고 오방색중에서도 난색계의 색상이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추상성 요인에서는 여의주형을 제외한 모든 패턴에서 추상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 바람개비형을 가장 입체적이고 기하학적인 감성으로, 여의주형을 가장 평면적인 감성으로 평가하였다. 이는 바람개비형의 중심점이 가운데 위치하고 있

고 이를 중심으로 바람개비의 날개와 같은 형태처럼 배열되어 있어 입체적인 느낌을 주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경직성 요인에서는 여의주형을 제외한 모든 패턴에서 경직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 수직형을 가장 도시적이고 직선적인 감성으로, 여의주형을 가장 전원적이고 곡선적인 감성으로 평가하였다. 이는 줄무늬와 색채에 의한 직물 이미지 연구에서 세로줄이 동적이고 도회적인 이미지가 강하다는 吉岡徹(1985)의 연구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따라서 강렬하고 화려한 감성에는 사선형, 세련되고 깨끗한 감성에는 여의주형, 규칙적이고 집중된 감성에는 색동형, 따뜻하고 화사한 감성에는 정방형1, 입체적이고 기하학적인 감성에는 바람개비형, 도시적이고 직선적인 감성에는 수직형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된다. 패턴별로 살펴보면 정방형1과 여의주형은 따뜻하고 화사한 감성, 정방형2와 사선형, 다이아몬드형, 동심원형, 바람개비형, 자유형은 강렬하고 화려한 감성, 색동형은 규칙적이고 집중된 감성, 수직형은 도시적이고 직선적인 감성으로 평가하였다.

이상과 같이 vivid tone에서 조각보의 패턴은 현시적이고 울동적이며, 따뜻하고 추상적이며, 경직적으로 나타났으며, 강렬하고 화려한 감성은 덜 매력적인 감성으로 평가하였다.

**pale tone일 때의 패턴의 감성이미지 :** pale tone일 때 7가지 패턴의 감성이미지를 평가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모든 요인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으며 전체적으로 pale tone일 때의 패턴의 감성이미지는 매력성, 울동성, 온도감 요인에서는 높게 나타났고 현시성 요인에서는 낮게 나타났다. 현시성 요인에서는 모든 패턴에서 현시성이 낮게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 정방형2를 가장 강렬하고 화려한 감성으로, 사선형을 가장 은은하고 수수한 감성으로 평가하였다. 이는 정방형2가 pale tone의 다른 패턴 중에서도 난색과 한색이 함께 나타나 강렬하게 느껴진 것으로 보인다. 매력성 요인에서는 모든 패턴에서 매력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 정방형1을 가장 세련되고 깨끗한 감성으로, 자유형을 가장 촌스러운 감성으로 평가하였다.

**Table 4.** pale tone 일 때의 패턴의 감성이미지

번호	요인면구성	현시성	매력성	울동성	온도감	추상성	경직성
1	정방형1	2.66c	4.90a	5.22a	4.72b	3.33d	3.95cd
2	정방형2	3.58a	4.27cd	4.87b	5.06a	4.60a	4.45a
3	사선형	2.59c	4.15de	4.41c	3.80e	3.47d	4.05bcd
4	다이아몬드형	2.71c	4.83a	4.33c	4.89a	4.12bc	3.92d
5	색동형	2.86b	4.45b	4.98b	4.47c	4.20b	4.13bc
6	바람개비형	2.69c	4.40bc	4.84b	4.22d	4.25b	4.08bcd
7	자유형	2.93b	4.04e	3.47d	4.59bc	3.97c	4.22b
F-value		50.27***	27.97***	95.60***	51.19***	43.70***	7.28***

\*\*\*p<.001 a,b,c : Duncan test결과로 .05수준에 유의함을 나타냄

울동성 요인에서는 자유형을 제외한 모든 패턴에서 울동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 정방형1을 가장 규칙적이고 집중된 감성으로, 자유형을 가장 불규칙적이고 산만한 감성으로 평가하였다. 매력성 요인과 울동성 요인에서 정방형1을 가장 높게 평가한 것은 정방형1이 같은 크기의 정사각형으로 모여 있고 색상분포가 규칙적이면서 단정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주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온도감 요인에서는 사선형을 제외한 모든 패턴에서 온도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 정방형2를 가장 따뜻하고 화사한 감성으로, 사선형을 가장 차갑고 칙칙한 감성으로 평가하였다. 이는 정방형2가 pale tone 중에서도 난색 계열색상의 사용이 많아 난색계 색상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추상성 요인에서는 정방형1, 사선형, 자유형을 제외한 모든 패턴에서 추상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 정방형2를 가장 입체적이고 기하학적인 감성으로, 정방형1을 가장 평면적인 감성으로 평가하였다.

이는 정방형2가 크고 작은 정사각형이 모여 있고 중심으로 갈수록 작은 정사각형이 배치되어 있어 입체적인 느낌을 준 것으로 보인다. 경직성 요인에서는 정방형1, 다이아몬드형을 제외한 모든 패턴에서 경직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 정방형2를 가장 도시적이고 직선적인 감성으로, 다이아몬드형을 가장 전위적이고 곡선적인 감성으로 평가하였다. 따라서 강렬하고 화려한 감성, 따뜻하고 화사한 감성, 입체적이고 기하학적인 감성, 도시적이고 직선적인 감성에는 정방형2, 세련되고 깨끗한 감성, 규칙적이고 집중된 감성에는 정방형1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패턴별로 살펴보면 정방형1, 사선형, 색동형, 바람개비형은 규칙적이고 집중된 감성, 정방형2, 다이아몬드형, 자유형은 따뜻하고 화사한 감성으로 평가하였다.

이상과 같이 pale tone에서 조각보의 패턴은 매력적이고 울동적이며 따뜻하게 나타났으며, 은은하고 수수한 감성을 더 매력적인 감성으로 평가하였다.

**4.3. 조각보의 선호도**

vidid tone과 pale tone일 때의 면구성에 따른 패턴의 선호도를 알아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면구성에 따른 패턴의 선호도는 vivid tone과 pale tone 모두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냈으며

**Table 5.** 면구성에 의한 패턴의 선호도

번호	면구성	vivid tone	pale tone
1	정방형1	3.66c	4.35bc
2	정방형2	3.45cd	4.58ab
3	사선형	3.03e	3.70f
4	다이아몬드형	3.38d	4.74a
5	색동형	3.91b	3.97de
6	동심원형	3.50cd	
7	바람개비형	3.72bc	3.87ef
8	수직형	3.53cd	
9	여의주형	4.67a	
10	자유형	3.48cd	4.17cd
F-value		24.90***	19.89***

\*\*\*p<.001 a,b,c : Duncan test결과로 .05수준에 유의함을 나타냄

vidid tone보다 pale tone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패턴일 경우 vivid tone보다 pale tone에서 매력성 요인을 높게 평가한 것과 일치하는 것이다. vivid tone에서 살펴보면 여의주형 패턴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사선형 패턴을 가장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vivid tone의 여의주형 패턴을 세련되고 깨끗한 감성의 매력성 요인에서 높게 평가한 것과 vivid tone의 사선형 패턴을 낮게 평가한 것과 일치하는 경향이다. pale tone에서 살펴보면 다이아몬드형, 정방형2, 정방형1, 자유형 패턴의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선형 패턴을 가장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pale tone의 정방형1 패턴을 세련되고 깨끗한 감성의 매력성 요인에서 높게 평가한 것과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대체로 높게 평가된 다이아몬드형을 선호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세련되고 깨끗한 감성의 매력성 요인이 선호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vivid tone보다 pale tone의 패턴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조각보를 대상으로 한국적 디자인에 적용될 수 있



는 조형적 분석을 통하여 정방향1, 정방향2, 사선형, 다이아몬드형, 색동형, 동심원형, 바람개비형, 수직형, 여의주형, 자유형 등 10가지 면구성형식과 vivid tone 과 pale tone 등 2가지 색조군으로 분류하였고, 이 두가지 조합에 의한 17개의 패턴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조각보의 구성요인은 현시성, 매력성, 율동성, 온도감, 추상성, 경직성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이들 중 현시성 요인과 매력성 요인은 조각보의 감성이미지의 중요한 차원으로 나타났으며, 율동성 요인과 추상성 요인은 조각보만이 지닌 독특한 감성요인으로 나타났다.

2. 조각보의 면구성에 따른 패턴의 감성이미지는 vivid tone 과 pale tone 모두 율동적이고 따뜻한 감성으로 나타났으며, 현시성 요인과 매력성 요인이 상반된 이미지로 평가되어 수수하고 은은한 감성을 더 매력적인 감성으로 평가하였다. vivid tone일 때 따뜻하고 화사한 감성을 표현하고자 하면 사선형, 규칙적이고 집중된 감성을 표현하고자 하면 색동형, 도시적이고 직선적인 감성을 표현하고자 하면 수직형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3. 조각보의 면구성에 따른 패턴의 선호도는 예쁜, 세련된, 깨끗한 등의 매력성 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vivid tone보다 pale tone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vivid tone에서는 여의주형 패턴을, pale tone에서는 다이아몬드형 패턴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조각보의 추상적인 이미지를 정량화하여 실질적으로 행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고 이는 조각보의 패턴디자인 개발에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의 패션시장에서는 한국적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과정을 통해 나타난 제한점은 자료수집에 있어 연구대상자를 대학생집단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결과의 확대해석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조각보를 응용한 패턴제작에 있어 유물에 근접한 색채구성으로 인하여 면구성 형식보다는 색채의 영향이 연구결과에서 좀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후속연구에서는 실험에 사용되는 색채를 제한하여 보다 객관적인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며 조각보의 패턴디자인을 활용한 의복디자인의 감성이미지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 참고문헌

- 고유섭 (1963) "한국미술사급 미학논고". 통문관, 서울, pp.3-13.
- 금기숙 (1994) 복식에 표현된 한국 고유색에 대한 연구. *홍익논총*, 26, 253-275.
- 금기숙 (1988) 조선시대 복식에 표현된 한국인의 미의식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윤경·이경희 (2000) 의복무늬의 시각적 감성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4(6), 861-872.
- 김윤희 (1997) 한국 복식의 미적 가치에 대한 고찰. *한국의류학회지*, 21(5), 946-955.
- 김희정 (1999) 현대패션에 나타난 동양적 복식디자인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금옥 (1996) 색채와 무늬에 따른 직물의 시각적 이미지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수진·조경자·장준익·김길남 (1997) 직물 디자인의 시각적 요소와 관련된 감성 어휘 모형. 한국감성과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pp.63-68.
- 양현주·권영숙 (2001) 한국 여자 전통 혼례복식에 나타난 미적 감성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9(1), 19-32.
- 은소영·주소현·이경희 (2002) 의복배색의 시각적 감성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6(5), 715-726.
- 이경희 (2001) 패션감성의 측정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제1보). *한국의류학회지*, 25(3), 537-547.
- 이혜숙 (1997) 복식색과 색조합의 이미지 지각·여자 저고리의 치마를 중심으로 한 준 실험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수경 (1997) 모티프의 표현방법, 모티프와 배경과의 명도대비에 따른 시각적 평가. *대한가정학회지*, 35(2), 159-172.
- 장수경 (1999) 한국전통문양의 종류, 표현유형, 구성형식 및 적용대상에 따른 감성이미지와 선호도.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시화 (1983) 한국인의 색채의식에 관한 연구. *조형논총*, 5, 65-79.
- 정은영 (2001) 원피스 드레스의 디자인에 관한 감성공학적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현승·이주현 (2000) 소비자 감성을 기반으로 한 꽃문양 스카프 디자인의 레이아웃 기법제안: 제2보. *감성과학회지*, 3(1), 53-62.
- 최세완·김민자 (1993) 현대패션에 표현된 한국 복식의 전통미. *한국의류학회지*, 17(1), 103-117.
- 허영화 (1985) 색채 Image 분석에 관한 조사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加藤雪枝 (1984) 衣服の形態と色彩效果に關する一連の研究. *纖維製品消費科學誌*, 25(9), 425-427.
- 加藤雪枝·倡山藤子 (1982) ブラウスのイメージに及ぼす形状及び色の效果. *纖維製品消費科學誌*, 23(4), 159-164.
- 吉岡徹 (1985) 被服における圖柄のイメージ(第1報)柄柄の色彩におけるイメージの計量. *家政學雜誌*, 36(10), 793-802.

(2004년 3월 26일 접수)